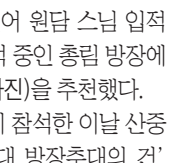


# 덕수총림 수덕사 제4대 방장에 설정 스님

## 2일 황하루서 열린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덕수총림 수덕사 제4대 방장에 설정 스님이 사실상 추대됐다. 수덕사(주지 운산)는 4월 2일 황하루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원담 스님 입적 이후 1년여간 공석 중인 총림 방장에 수좌 설정 스님(사진)을 추천했다.



134명중 78명이 참석한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제4대 방장추대의 건'이 단일 안건으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추대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설정 스님은 조계종 중앙총회의 추대 절차를 거쳐 방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날 산중총회 의장 운산 스님은 "이미 3월 9일 열린 임회에서 설정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했으나 종현 종법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산중총회의 만장일치 추대에 따라 법단에 오른 설정 스님은 추대수락사를 통해 "덕이 없는 제가 덕수산의 방장으로 추대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근대 한국불교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경허-만공



4월 2일 수덕사 정혜사에서 봉행된 '만공 선사 탄신 138주년 대례'에서 스님들이 만공선사 부도탑을 참배하고 있다.

선사의 뜻을 이어 수덕사를 수행도량으로 가꾸고 선 증흥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해암-벽초-원담 스님으로 이어진 덕수총림 방장스님들의 유지를 이어 덕수산문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설정 스님은 1955년 13세에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의 법제자인 원담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봉암사 범어사 정혜사 선방 등에서 참선정진 했

며 30대에는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수덕사 주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총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덕수총림 수덕사 수좌(首座) 겸 화계사 회주로서 원담 스님 입적 후 총림을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 총무원장 재임 중 입적한 법장 스님의 사형이기도 한 스님은 수행과 중무행정, 포교에 두루 능통함으로써 이판과 사판, 종통과 설통을 결합해 일찌감치 차기 방장으로 거론돼 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익산 미륵사지석탑 진신사리 출현

## 조계종, 사리친견법회 봉행 예정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3월 31일 국립문화재연구소 금속보존처리실에서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이운 및 공양의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집전으로 봉행한 의식은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수경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보련 스님(총무원 문화국장),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이 동참했다. 스님들은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사리장엄구 발견 당시 이운 의식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이운의식을 먼저 봉행했다. 또한 X-ray 투시 결과 금동사리호 내 내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행된 금동사리호 개봉·조사를 주관했다. 사리구를 개봉한 결과 사리 내호

와 다량의 구슬, 성분 미상의 사리 12과(顆)가 수습됐다. 이에 스님들은 진신사리를 모시고 공양의식을 봉행했다. 이번회 행정관(조계종 문화부)은 "이번에 출현된 미륵사지석탑의 진신사리는 1300년 전 백제인의 신앙의 결정체"라며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불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도록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높이 5.9cm·어깨 폭 2.6cm의 사리내호는 전반적으로 외호(높이 13cm·어깨 폭 7.7cm)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으나 뚜껑과 동체 상부가 일체형(一體形)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동섭·김진성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3회 청도 유등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제3회 청도 유등제가 3월 2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청도천 파랑새 다리 부근에서 펼쳐진 유등제는 27일 저녁 범오식과 점등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동안 군민노래자랑과 재즈 공연, 어울림 한마당 등이 이어졌다. 올해 유등제는 청도 소재 유등제기간에 멀리서 돼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띄워진 오색 유등을 감상하며 불교문화의 향취를 마음껏 느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천년고찰 앞까지 불어닥친 'MB식 토목' 광풍

## 대성사·봉림사·용천사 수행환경 훼손 위기

MB정부 들어서 극심해진 '토목 광풍'이 천년고찰까지 불어닥쳤다. 서울 대성사(주지 법안)는 3월 27일 서초구청에서 대성사 50m 앞에 2010년 완공될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 건설 철화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중앙승가대학인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은 "6344m2에 달하는 공연연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며 "건설 예정지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등은 준비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2007년 9월 경 전통사찰 500m까지

인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아예 해제하는 등 치밀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게 대성사측 주장. 이에 앞서 또 다른 전통사찰인 화성 봉림사(주지 선문)도 3월 11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화성시의 산지전용허가로 사찰 앞 50m에 공장이 들어설 위기에 처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공장 허가는 전통사찰 500m 이내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200미터로 제한한 경기도 관련 조례까지 위반한 허가여서 또 다른 논란까지 낳고 있다. 더불어 합평 용천사(주지 혜웅)는 인근 생수공장 건립으로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반대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용천사 인근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 지역으로 용천사와 500여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다. 용천사 인근에 생수공장이 추진된 것은 2006년 전남도 생수판매에 개발을 허가하면서 부터. 현재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용천사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장건립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혜웅 스님은 "생수공장에서 500톤의 지하수가 취수예정이다. 500여 명 주민이 20km까지 그 파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 중국서 통일신라시대 불상 최초 발견

## 한·중·일 금속공예의 중세 교류 관계 공동연구

한국과 중국의 불교 교류를 입증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8세기 중·후반) 불상이 최초로 발견됐다. 동국대 최웅천 교수(미술사학과·동국대박물관장)는 3월 21~28일 진행된 '일본 도요타 재단 연구 지원에 따른 한·중·일 금속공예의 중세 교류 관계 공동조사 연구' 과정에서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시 박물관 소장 유물 중 통일신라 불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이 불상은 높이 21cm에 이르는 크기로 오른 손은 가슴 위로, 왼손은 아래로 내린 자세이지만 아미타불의 수인을 취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나발과 육계가 두툼하게 솟아있다. 또한 통견의 법의는 목 앞에서 몇 번 접혀지고 가슴 앞에서 U자형 주름으로 흘러내리다 배 앞에서 양 Y자형으로 갈라져 흘러내린 전형적인 박물관 소장 유물 중 통일신라 불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 수경 스님과 함께하는 오체투지

## “묵묵히 생명평화를 외칠 뿐...”

### 계룡산 중악단~임진각 2차 순례

“찌르륵 찌르륵”, “부우웅” 하늘을 노니는 새소리와 지축을 울리는 자동차 소음이 귓가에 끊임없이 울린다. 돌 냄새, 또는 아스팔트 냄새, 자연이 만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냄새가 코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각 차례상과 향로, 정인수를 받쳐 들고 중악단에 들었다. 세 성직자는 천지신에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리며 순례를 고했다. 박남준 시인이 낭독한 고천문을 세 성직자는 불태우며, 오체투지로 다시금 예를 표했다.



3월 28일 계룡산 중악단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제2차 오체투지 순례를 시작한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전종훈 신부(왼쪽부터).

오체투지는 서있을 때와 또 다른 세계를 선사한다. 다섯 걸음을 걷고 온몸을 낮춰 대지의 오감을 느끼는 순간은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는 자기성찰의 시간이다.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이러한 길을 지리산 하악단부터 거쳐왔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54일동안 자연과 호흡한 길은 170km에 이른다. 신록이 울트는 3월 28일, 겨우내 세상과 소통한 오체투지 순례단이 계룡산 중악단 천고제를 시작으로 묘향산 상악단까지의 순례를 재개했다. 절정에 이른 양기와 차오르는 음기가 조화를 이루는 미시(未時), 중악단에는 오체투지 동참을 위해 선남자, 선여인 5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뽀~” 긴 나팔 소리와 대고 소리가 계룡산을 울리는 가운데, ‘사람·생명·평화’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든 무희가 비나리를 시작했다. 정화수와 소나무 가지를 든 무희가 부정을 씻는 정화 의식을 펼친다. 속대를 앞세운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는 각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 “물질가치가 우선시되고, 정신가치가 소외받는 현대사회에 세 성직자들이 다시금 오체투지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며 “참사람, 참생명, 참평화를 외치는 이들의 정신이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500여 참가자가 오체투지하며 천고제를 마친 순례단은 당일 공주 계룡면 양화리까지 2km 가량을 순례했다. 엄마 손을 잡고 나눈 아이도, 노인도, 수녀님도, 심지어 취재기자도 오체투지로 자신을 돌아봤다.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며 혀를 차는 행인부터, 자신이 농사지은 땅기를 보시하는 아낙네까지 순례단을 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잠시 쉬는 수경 스님도, 순례단 어느 누구도 말없는 묵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생명평화를 외칠 뿐이다. 이날 2km를 시작으로 순례단은 74일간 230km의 대장정을 마치 자발레처럼 나아갈 것이다. 스스로 몸을 낮추며 조금씩 전진해 6월 9일 임진각에서 화려한 날개를 펼 때 까지... 노덕현 기자

## 대한불교 무량종 개산 종조 제1세 효종 혜안 대종사 종정 취임 대법회

**봉** **축**

귀의삼보하옵고!  
본 종을 애중하시는 모든 불자님과 사부대중 법체 청안하시옵고 하고자 하시는 일 무장성취 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 하옵니다.

섬진강변 백리길 벚꽃잎은 하동포구 은빛 물결따라 한려수도도 흐르고 이른봄 야생화 향기가 가득찬 산사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대한불교 무량종 창종 10주년을 맞이하여 효종 혜안 대종사님을 개산종조 제1세 초대 종정으로 모시는 추대식과 제4대 총무원장 법천 보경스님 취임을 다음과같이 봉행 하오니 참석 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행사내용 : 제 1부 - 10시 문수궁 석굴암 낙성식 (설아다회 육법공양)  
제 2부 - 11시 종정 추대식 및 총무원장 취임식  
제 3부 - 13시 경로 위안잔치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공연)

※ 일 시 : 2009년 4월8일 (음 3, 13일) 수요일 10시부터  
※ 장 소 :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 연락처 : 총본산 봉행위원회 (055)883-7771, 7790

부 위원장 : 오현 현장 종성 보인 다정 보산 보각  
집행위원 : 보광 보성 보아 원정 정암 정담 명운 보혜 정운 보정 정향 효각 정심 보선 정수 명진 자명 지운 혜륜 대륜 법륜 정안 보우 지담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추대법회 봉행 위원회